

# 일병목회강좌 이사야 4장

2017. 11. 23

## 1. 구원 그 이후 (제 3 이사야)

### ① 역사적 배경

-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회복을 감사해하지 않는다. 불충이나 배은망덕이 아니라, 돌아왔는데 현실적 상황이 하나도 나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 은혜를 받았는데 현실적으로 아무 소용이 없어서,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체념하게 된다. 은혜를 받으나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나 나올게 뭐 있냐는 것이다.
  - 신자의 신앙생활 현실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부작용은 체념이다. 열심을 안내는 것이 아니라, 잘하나 마나 똑같은니까 열심히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 ② 세 개의 세계관

- 제1차 세계관에서 율법, 인과응보의 원칙을 제시하시고 그 원칙에 따라 하나님을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넘기셨다.
- 그 넘긴 하나님이 '너희가 잘못했지만 내가 너희를 택했고, 너희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내가 너희를 절대 버리지 않으며, 너희를 회복하고 기쁨으로 나아가며 내 이름을 드높일 것이다'라는 은혜의 세계관, 제2차 세계관을 약속해서 시행하셨다.
- 그런데, 그렇게 돌아왔는데 다시 꾸중이 나온다. 3차 세계관이다.

제1이사야(1-39장)	유다 왕조 말기	1차 세계관	율법/인과응보적, 꾸중과 심판
제2이사야(40-55장)	바벨론 포로기	2차 세계관	은혜, 구원과 회복의 약속
제3이사야(56-66장)	포로 귀환 후	3차 세계관	탄식 가득한 현실과 재등장한 꾸중

### ③ 3차 세계관

- 3차 세계관, 즉 1차와 2차 세계관 너머의 세계관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큰 차이이다. 해야 할 것을 못 했을 때 그 못한 것이 잘잘못으로 끝나느냐, 잘잘못을 극복하는 또 다른 은혜가 있느냐를 제시하기 때문이다.
- 신앙현실에서 율법주의적으로 각성하고 돌아보는 때도 있고, 은혜를 구하여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애쓰는 때도 있다. 1차와 2차 세계관의 순서가 일률적이지 않은 경험을 하며, 이 두 세계관만으로는 율법과 은혜 가운데 어떤 것이 더 나은지 알 수가 없다.
  - 은혜가 최종적인 것으로 나타나지 않고, 율법을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율법이 없어지면 벽이 무너지는 것 같이 은혜를 담은 공간이 없어져버리는 경험을 할 것이다.

- 자율성과 진정성이라는 이름으로 한 개인의 결정에 맡겨서는 안 된다. 바깥의 규칙, 기본이 있어야 한다. 기본은 기본 명분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유익하기 위해 있는 것이다.

## 2. 꾸중, 각성케 하는

### ① 체념과 꾸중

- 왜 다시 은혜로 약속한대로 회복이 일어나자 기쁨과 감사와 자랑으로 가지 않고 낙담과 체념으로, 그에 대한 꾸중으로 올 수 밖에 없었는가?
  - 이런 꾸중들은 다시 율법을 들어 잘잘못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율법 세계관을 넘어선 유익하게 하는 은혜의 세계관이 우리를 밀어서 명예의 자리로 내보내는 자리이다.
  - 1차 세계관에선 잘잘못이 율법적 기준에 근거하여 잘하면 복 받고 못하면 벌받는 것이었는데, 은혜를 거쳐 3차 세계관에서 율법적 지적이 일어나는 것은 명예와 지위와 기회를 헛되이 쓰는 것에 대한 책망이다.
  - 주어진 명예와 지위를 누리라는, 훨씬 높은 차원에서 들어오는 꾸중이다.

### ② 탕자의 비유

- 세 주인공이 3중창처럼 어우러지는 놀라운 비유이다.
  - 하나님은 하나님다우시다(돌아온 아들을 기뻐하는 아버지).
  - 그 뿐 아니라,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셨다.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집 나갔다 회개하고 돌아온 작은 아들)과,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어떻게 누리야 하는지 모른다는 꾸중 속에서 명예를 이해하게 만드는 것(동생이 깨우친 내용을 집에 있으면서 몰랐던 형)으로 3중창을 이룬다.

### ③ 탄식, 자유에의 갈망 (롬 8:18-23)

- 구원도 얻었고 하나님과 화평도 이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있으면서도, 탄식 속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잘잘못의 문제(1차)라면 구원은 불가능했을 것이며, 하나님이 그 아들 안에서 구원(2차)을 해줬으면 탄식이 없어져야 하는데 탄식이 남아있으니, 이 두 세계관에서는 답이 안 나온다.
  - 1차 세계관과 2차 세계관에서는 명예라는 말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 이 두 세계관 모두 우리를 정죄할 뿐이다. 구원과 회복이 있지만, '나 같은 죄인'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 3차 세계관에 와야 답이 녹아 든다.
- 자유란 선택할 명예, 선택할 권리, 선택한 권리에 대한 책임이다.
  - 선택은 실력이 있는 만큼 밖에 할 수 없다. 마음껏 하게 준 것이 인간에게 준 하나님의 어떤 형상

이다.

- 아담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선택하고, 그에 대한 책임으로 자신의 명예와 승리를 놓친 것이다. 예수는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순종하여 본인의 선택으로 승리를 만들어 내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 ④ 3차 세계관, 선택 훈련소

-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아담과 예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하신다.
  - 아담의 DNA 속에서 죄를 선택하는 본성과, 예수 안에서 받은 은혜가 우리 눈을 밝혀서 보게 한 생명과 구원과 진리와 덕목들을 소원하는 두 사이에, 우리를 갈등케 하고 살아서 고민하게 만든다.
  - 탕자의 각성 :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져 가도, 이 모든 재산은 그 가치를 생산하고 유지하는 분이 없으면 소모돼서 끝장이 난다는 것을 배운 것이다.
- 우리에게 하나님이 마음껏 이 기회를 요구하는 것이 3차 세계관이다. 네 뒤통을 다 쬐었으니까 네 인생에서 모든 만나는 경우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과 세상이 위협하는 것 두 가지를 놓고 해보라고 하신다.
  - 하나님은 멋있게 굴라고 하신다. 멋있게 구는 것은 어렵다. 그렇게 하는 사람보다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곳에 우리를 넣어 두셨기 때문이다.
- 시간이 있다는 것은 오늘 하루가 끝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늘 못 한 것이 내일을 위하여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과거에 붙잡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 매일 하나님이 놔두지 않는 현실이 오는데, 1차 세계관의 보상 원리에 묶여 있고, 할 말 없으면 2차 세계관의 은혜를 구하는 것으로 때우고 실제로 안 살고 있다.
- 우리의 조건이 없어지고 희망이 없는 데서 상상을 넘어서는 부활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에 대해 그럼 뭐 때문에 열심히 하냐는 물음이 생긴다면, 그 지점이 바로 자유가 필요한 곳이다. 자유란 스스로의 선택이 되는, 보상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간의 명예이다.
- 매일 만나는 사람에 매일 해야 할 일들로, 하나님이 매일 도전하고 있다.

### 3. 하나님의 꿈

#### ① 이사야의 결론, 하나님의 꿈

- 이사야 60장부터의 주제는 하나님의 꿈이다.
  -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이 바라며 목적하고 계신다.

- 종말론적이며 목적과 운명으로서만이 아니라, 지금 만들고 있는 현실을 그렇게 붙들어 매라고 소개되고 있다.
  - 이런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과 종말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만들어가시고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루 하루로 역사와 인류와 자신의 인생을 볼 줄 알아야 한다.
- 오늘 하루를 견뎌내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른다. 하루만큼 배우기 때문이며, 하루만큼 크기 때문이다. 또 하루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또 나와 일하시기 때문이다.

## ② 복음, the Big Picture (롬1:16)

- 기독교 신앙을 부정적이고 소극적으로 이해하지 말고, 큰 그림에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이해하라.
  - 기독교 신앙은 복음이다.
  - 복음은 하나님이 최초의 뜻을, 그의 형상으로 만든 인류의 운명과 내용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다. 최초의 뜻을 시간과 공간 속에서 구체적으로 완성하고야 만다.
  -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사건이며,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의이며, 하나님다우심이다.
  - 그가 창조하신 세상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며 목적이다.
- 큰 그림을 보지 못하면, 즉 무에서 유를 만들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 같은 방법의 열림을 이해하지 못하면 1차 세계관의 인과율에 묶이고 만다.

## ③ 꿈을 이루는 방법 (행4:5-12; 23-31)

- 예수 외에는 없다. 예수는 성육신의 이름이며,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방법이다.
  - 예수가 누구인지 몰라보는 정황 속에 찾아오시는 이름이며, 구체적인 이름이며, 십자가를 지시는 이름이다.
  - 이런 방법과 이런 순종과 이런 구체성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뜻이다.
-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시며 섭리자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와 완성을 대적들을 세워 하신다고 이미 선포하며 예언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빌라도와 헤롯이 주의 뜻을 이루려고 와서 자기 일을 하고 있으니, 우리도 우리 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 역할 해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선 종들로서 자기 역할 담대하게 하게 주옵소서”.(행4:23-31, 일병새번역)
- ‘내가 준비한 내 그릇이며, 내가 예정한 내 종’이라던 바울도, 그 반대편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인 자였다. 하나님이 왜 일을 이렇게 앞뒤가 안 맞게 하시는지 생각해 보라.
- 모든 한계와 실패가 오히려 일을 한다. 하나님이 우리 손에 죽으신 것으로 오히려 구원하셨다. 내가 죽인 예수가 내가 죽였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